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朴昇植*

目次

I. 序論	III. 道通眞境의 意義
II. 道の 의미	1. 大巡思想의 道の 의미
1. 儒家의 道	2. 道通의 의미
2. 道家의 道	3. 眞境의 의미
3. 佛敎의 道	IV. 結論 :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I. 序論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도통진경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과 함께 道通眞境은 주요한 대순사상의 하나로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종교는 각기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진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대순사상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은 도통진경을 실현하려는 단계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이며, 대순사상이 완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道通眞境은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고도 하고, 도통과 진경이 합성된

* 행정학 박사

용어로도 볼 수 있다. 도의 개념도 다양한데, 도를 통한다는 도통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진경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따라서 도통진경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多義的)이라, 도통진경을 설명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도통은 인간이 수도를 하여 초월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도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역사적으로 사상가에 따라서 도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도를 닦는 방법도 각기 달라져 왔기 때문에, 도의 개념이 매우 다의적(多義的)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도에 통한다는 도통은 도를 어떻게 인식하는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진경은 자연 환경의 완전한 경지를 의미한다. 현재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은 불완전하고, 각종 자연적 재해인 천재지변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진경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수도를 하는 것은 도통을 이루고, 인류가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인 진경을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도와 대순사상에서 의미하는 도의 개념을 살펴 보고, 도통진경의 종교적 의의에 관해서 논구해 보고자 한다.

Ⅱ. 道의 意味

도는 중국의 선진(先秦)시대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다. 道의 字意는 십자로(十字路)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한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용어는 道와 路가 있는데, 합하여 도로라고도 한다. 路는 사람이 통행하는 길만을 의미하고, 道는 걸어 다니는 길만이 아니라 形而上學的인 의미도 갖고 있다. 道가 길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形而上學的 의미를 가지면서,

역사적으로 각기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중국에서 道는 십자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을 상징하면서 형이상학적 개념을 갖게 되었다. 도는 십자로에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와 같이, 인간 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대상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를 상징하면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인간 생활에서 禮와 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論語 學而編에서 “道千乘之國”의 道字는 ‘다스리다’ 라는 治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禮와 利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다¹⁾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를 禮로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利로 다스릴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는 가치 판단에 의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도는 사물이 운동하거나 변화할 때에 따라야할 보편적인 법칙, 혹은 만물의 本體로 이해하여 근원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도는 만물이 생성되는 시원(始原)으로서, 만물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기본적 원리로 보기도 한다.

한편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행한다’, ‘행하기 위한 기술’, ‘방법’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²⁾ 도는 인간의 해동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방식(way of life)으로 인식되었다.³⁾ 도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기준과 원칙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도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인간이 진실성있는 행동을 하여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종교에서는 도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중시하여 철학, 문학, 사상, 예술, 문화 등 정신적·물질적인 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따라 道德, 道理, 道義 등의 용어가 생겼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技藝나 方術,

1) 李相珣, “孔孟之道的 現代社會思想的 意味”,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 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93), p. 274

2) 金勝東, 道教思想辭典(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p. 170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武術 등에서의 방법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에는 각각 특수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관점에서 道를 붙이고 있다. 도를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는 태도와 기법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醫術을 의도(醫道), 무술을 무도(武道)라 부르기도 하고, 이외에도 藝道, 碁道, 書道, 茶道, 柔道, 跆拳道, 劍道 등의 용어가 있다.

동양에서는 도를 종교상 教義에 깊이 통하여 알게 되는 이치, 또는 교의를 깊이 깨달은 지경으로 사용하여 왔다. 동양에서는 유도(儒道), 불도(佛道), 선도(仙道)라 하였으며, 도를 강조하는 도교(道敎)도 있다.

이러한 종교적 의미의 도는 서양에서 종교를 뜻하는 religion과 유사하지만 함축하는 의미는 다른 내용이 많다. relig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religio인데, religio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⁴⁾ religio는 인간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외적인 힘과, 이러한 힘에 대한 인간의 감정으로 금기(taboo)와 유사한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리고 religio는 본래는 세속적 어휘에서 이차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도 한다.

한편 religion은 relegare의 파생어로서 인간이 예배를 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religio가 ‘다시 묶는다’는 것을 뜻하는 relegare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relegare가 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religio는 신과 인간의 재결합(rebind between man and God)을 의미한다고 한다. 서양에서 말하는 religion은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신과 인간이 다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religion은 신을 숭배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도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 또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 의미가 다르다.

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다. 도는 중국 철학사상의 2대 조류인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에서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인도에서 창시되고

4) 金鍾瑞, “東·西 宗教觀의 比較”,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宗教思想의 諸問題 (V)(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pp. 55-57

동양의 각국에서 발전한 불교에서도 불도(佛道)라 하여 도를 강조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는 도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 등이라 주장하였고, 그 후 유학자들도 理와 氣로 도의 개념을 정립하면서도 인륜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노자와 장자는 도를 우주 만물의 근본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道家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생멸변화를 반복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도만은 궁극적으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가에서는 유교적인 지식이나 제도, 위정자의 간섭 등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지만물의 생성자인 도를 체득하여 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닫는 自覺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리를 도라 한다. 인간은 태어 나면서부터 끊임없는 번뇌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는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인간의 고통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원인이 있는데, 욕망이 없어지는 것을 멸체(滅諦)라 한다. 멸체(滅諦)는 고통을 멸하는 진리인데, 멸체에 이르는 과정을 도라 할 수 있다.

유가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禮樂的 人文主義를 강조하고, 仁義道德을 근본으로 하여 人爲的이며 肯定的인데 비해서, 도가는 無爲自然을 근본으로 하여 否定的이며 超越的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와 도가는 대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인간고(人間苦)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색과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동양의 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儒家의 道

유가를 창시한 孔子가 생존한 春秋時代는 극도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였다. 孟子는 이 시대를 가리켜 사탈폭행(邪脫暴行)의 시대라 하였는데, 그만큼 커다란 혼란기였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정치, 사회적 무질서를 회복하는 문제

둘째, 역사적으로 단절된 법도(法道)인 도의 계승 문제

셋째, 사회적 무질서와 사상의 빈곤이 초래한 인간성 상실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 같다. 이러한 제문제들은 공자가 인도(仁道)를 주창하는 근본배경이 되었다.⁵⁾

공자는 자신의 도를 오도(吾道), 사문(斯文), 오당(吾黨)이라 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도의 개념과는 구별하려고 하였다. 공자의 제자들도 부자지도(夫子之道)라 하여 전통적인 도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하였다.⁶⁾ 공자는 도를 인간의 존재가치로 보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 可矣)”⁷⁾고 하였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 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가치라 하였다. 도를 실천하는 정도나 수준으로 인간을 분류하고 있다. 인간을 도의 실행 수준에 따라 小人, 君子, 大人, 聖人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의 품격을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인도(仁道)를 강조하고 있는데, 仁은 천도(天道)라 하고 있다. 중국에서 하늘(天)에 대한 사상은 고대로부터 내려 오는 민족 신앙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신이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多神敎的이었다. 그러다 夏·商 이후에 天이나 帝의 개념이 형성되어 多神 敎의 最高 神으로 天과 帝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天을 黃天, 昊天, 蒼天, 旻天, 上天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帝를 皇皇后帝, 黃天上帝, 古帝, 天帝, 惟皇上帝, 上帝, 또는 玉皇上帝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것들은 모두 在天의 신으로서 天은 주로 그 형체를, 帝는 주로 그 德을 말한다.

공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天 개념과는 달리,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국의 天 思想은 인간에게 禍福을 좌우하는 공포의 천이었다. 공자는 인습적인 천에서 탈피하여 천이 인간에게 명하는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여 天 개념을 정립하였다.⁹⁾ 공자가 말하는 天은 모든 원리의 원리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주 만물에 命하지만,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5) 柳七魯, 中道와 原始儒家의 本體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pp. 21-23

6) 上揭論文, p. 13

7) 論語, 卷4, 里仁篇 8

8) 裴宗鎬, “東洋 本體論 序說”, 韓國東洋哲學會 編, 前揭書, p. 4

9)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p. 107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天思想에 의해 공자는 仁을 天道라 주장하였다. 인간이 인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공자가 말하는 인은 用이 아니라, 體로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 단순한 덕목으로서 인이 아니라, 天性과 物性에도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인이다. 仁은 인간에게는 물론 만물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仁義禮智信도 근본은 仁이라는 것이다.

中庸에서 '仁者人也'¹⁰⁾라 하였고, 공자도 殷有三仁爲라하여 人과 仁을 통용하고 있다. 논어에 爲人由己, 我欲仁 斯仁至¹¹⁾, 그리고 맹자가 '仁也者人也'라 하여 仁과 人을 합하면 道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주장은 仁性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며, 인간이 인행(仁行)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유가의 仁은 곧 도의 실질적 내용이 되며, 인간이 금수와 구별할 수 있는 본성으로 보고 있다. 맹자는 인간다움으로 측은(惻隱), 사양(辭讓), 수오(羞惡), 시비(是非)의 사단(四端)과 仁義禮智의 4덕을 강조하고 있다.¹³⁾ 仁을 실행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인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의의가 된다는 것이다. 즉 仁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이며, 이를 실행해야만 참다운 인간이라는 것이다.

仁性은 누구나 갖고 있고 仁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 한다. 사람을 떠나서는 仁을 말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仁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仁을 가져야 하며, 不仁하다면 사람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답지 않다고 해서 仁性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자나 맹자가 설파한 仁을 기반으로한 도의 개념에, 역(易)이나 中庸에서는 老莊思想을 통합하여 이론적인 면을 강화하였다. 宋代의 유학자들은 理

10) 中庸, 20章

11) 論語, 述而 7-30

12) 孟子, 盡心下 16

13)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p. 355

와 氣라는 개념으로 도를 설명하고 이론을 발전시켰다. 理는 중국 선진시대 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理는 객관성, 보편성, 법칙을 가리키는 뜻으로 道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理는 객관적인 것으로 모두가 공인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인식하여 道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理氣의 개념을 체계화한 것은 宋의 鄭伊川이다. 그는 “陰陽을 떠나서는 도가 없다. 음이 되고 양이 되는 까닭이 도이다. 음양은 氣이며, 기는 形而下者이고 도는 形而上者이며, 形而上者는 은밀하다”¹⁴⁾ 고 하였다. 즉 음양을 氣, 음양하는 이치(所以陰陽者)를 道, 또는 理라 하였다. 所以란 이유, 원인, 원리, 법칙의 뜻으로서의 理이다. 음양하고 動靜하는 것을 氣라 한 것은 氣하는 이치를 道, 또는 理라 한 것이다. 천지 현상을 氣의 조화로 보고, 그 현상이나 조화의 법칙과 원리는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정이천이 말하는 氣는 현대 과학의 에너지로 볼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質量을 형성하며, 질량은 원자(atom)를 이룬다. 원자는 양성자(praton)와 음전자(electron)로 구성되는데, 원자는 다시 에너지로 환원된다고 한다. 氣는 우주 공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陽氣와 陰氣로 구분하고 있다.

정이천은 “理가 있으면 氣도 있고, 氣가 있으면 理도 있다. 귀신이란 것은 數이며, 數란 氣의 작용이다”¹⁵⁾라고 하였다. 그는 理와 氣는 개념상의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數란 음양의 기운을 뜻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一氣가 음양의 二氣로 분화하는 데서 귀신자(鬼神者)는 數라 한 것이다. 정이천은 귀신을 氣之用이라 하여 氣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음양작용을 뜻하는 것이다.

정이천의 理氣二元論과 周濂溪의 太極圖說을 종합하고, 道學을 분석하여 중국 철학을 새롭게 정립한 朱子는 理와 氣를 決是二物이라 하여 서로 다른 것이라 하기도 하고, 不可分開라 하여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理氣를 서로 다른 것이라 하기도 하고,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것이라고도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¹⁶⁾ 주자가 理와 氣를 달리 설명한 것은 원리적

14) 離了陰陽이면 更無道요. 所以陰陽者 是道也라, 陰陽은 氣也니 氣는 是形而下者요, 道는 是形而上者니 則是密也라. 二程 全書, 券16

15) 有理則有氣 有氣則有理 鬼神者 數者 數者氣之用也, 二程全書 卷41

인 理와 소재로서의 氣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決是二物이라 한 것이고, 실제 個物은 理와 氣가 합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不可分開라 한 것이다.

주자는 태극을 理, 음양을 氣라 한다. 그는 태극은 천지만물의 理이며,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理가 있었다고 한다. 움직이어 陽이 생기는 것도 理이고, 靜하여 음이 생기는 것도 理라 한다.

程朱의 理氣는 인간이 있어서는 性情과 관련된다. 정이천은 理를 性으로 보고, 천하가 인정하는 理를 개인의 性과 동일시 하고 있다. 천하의 理를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이 性을 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 보편성과 주관적 특수성을 통합하게 된다. 즉 理를 실천하는 것이 곧 性을 펴는 것이며, 性을 발현하는 것이 理의 이치와 합치하는 것이라 한다. 그는 性卽理의 이론으로 “性은 善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才다”¹⁶⁾라 하여 人性을 설명하고 있다. 性은 理이므로 인간은 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간이 不善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기질인 才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주자는 性인 體를 理, 情인 用을 氣로 보고 있다. 그는 “仁義禮智는 性이요, 惻隱, 수오(羞惡), 辭讓, 是非는 情이다. 仁으로서 사랑하고, 義로서 미워하고 禮로서 사양하고, 智로서 아는 것은 心이다”라 하였다. 이는 맹자가 말한 仁義禮智의 4덕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性이며, 4端인 측은, 수오, 사양,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주자는 心을 外物에 응하는 주체로 이해하였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고 外物에 응할 수 있는 理를 性이라 하고, 心 자체는 氣이고 性 자체는 理라는 것이다. 그러나 心에는 理와 氣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性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자는 마음(心)은 “虛靈한 것이 本體”라고 정의하여, 마음의 본 상태는 형체를 갖지 않으면서도(虛),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靈)는 것이다. 마음을 “氣의 靈”이라 하여, 마음은 영명한 능력을 갖고 있어 깨닫는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에 의해 깨달은 것이 理라 한다. 마음은 外物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볼 수 없으나, 그 이치를 깨달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감각을 통해서 外物을 보거나 형체를 파악하지만, 이치를 아는 것은 마음에 의해 이루

16) 裴宗鎬, 前揭書, pp.164-165

17) 柳仁熙, “程·朱의 人性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前揭書, pp. 256-257

어진다는 것이다.

주자는 깨닫는 것은 氣의 靈이지만, 깨닫는 바는 마음의 理라 한다. 그리하여 “性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理이고, 마음은 理가 모여 있다”고 한다. 마음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의 理만이 아니라, 外物의 理도 깨달았다는 것이다. 외물의 理라 하더라도 그 理가 감각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靈覺能力에 의해서 체득되는 것이라 한다.

주자도 마음의 본성을 孔孟과 같이 仁이라 한다. 마음의 理는 바로 仁인데, 仁은 생하게 하면서 그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인간됨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음의 본성은 生理로서 仁이라는 것이다. 이 生理와 仁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인간의 본원은 우주에 있으므로 인간은 천지의 大德에 의해 生生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仁心은 천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고, 천지에도 仁心이 있다는 것이다.

천지의 운행은 元亨利貞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元(시작), 亨(성장), 利(완숙), 貞(결실의 마침)의 과정에 의해 천지는 운행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元者를 천지 생물의 終始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仁이 人心의 終始가 된다고 한다.¹⁸⁾ 인간에게 仁이 없다면 사회정의도 질서도 시비 분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은 仁心에 의해 도덕심이 발동하고 도덕적 사회질서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 道家의 道

유가사상은 상류층의 지도자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도가사상은 상류 지식층으로부터 하류 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민속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정신사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주의와 합리주의적인 유교에 비하여,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道敎는 형이상학적 성격과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다양하다. 도교라 할 때와 도가라 할 경우가 있는데, 총칭하여 도교라 하기도 한

18) 上揭論文, p. 263

다.

도가는 三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上은 老莊의 사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中은 神仙의 방술을 뜻하고, 下는 종교적 성격을 뜻한다. 상품인 老莊思想을 도가라 한다. 중품인 神仙思想은 長生不死하는 보건 위생적인 특수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도가의 근본은 老子的 道德經이라 할 수 있는데, 도와 덕은 儒家에서 말하는 도덕적·인륜적 의미의 도덕이 아니라, 자연적·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도가의 道德論은 인간적인 윤리적 영역이라기 보다는 자연적 의미에 있어서 철학적 도(眞理觀)와 德(得의 의미)이다. 도는 자연적 진리를 의미하는데, 인간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자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덕을 중시한다. 덕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得의 의미가 있다.

노자는 天을 자연으로 이해하여 도법자연(道法自然)¹⁹⁾이라고도 한다. 하늘은 자연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나 욕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노자는 “天地는 不仁하여 以萬物爲芻狗하고, 聖人은 不仁하여 以百姓爲芻狗이다”²⁰⁾라 하여, 천지는 공자가 말하는 愛와 情이 없으므로 仁이 없다고 한다. 天이 천지만물을 생성하는 것은 仁과 같은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성인도 不仁하여 백성을 애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한다. 이러한 자연적 天은 천에 내재해 있다고 믿었던 主宰的 觀념을 버리고 다만 원리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노자는 도는 무상무상(無狀無象)하여 인간의 지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여 직관과 체험만으로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를 노자는 우주의 원리라 하여,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기(陰氣)를 포함하고 양기(陽氣)를 지녀 혼연히 하나로 풀려 화합한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고 하였다. 道生一의 道란 구극적 始原으로서, 그 體는 無이며, 이 無가 動하여 변하는 것을 一이라 한다. 태초에는 아

19) 老子, 25장

20) 上揭書, 제5장

무 것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는데, 하나가 생겼는데 하나로는 생기지 않으므로 둘로 나뉘었는데, 이것이 음과 양으로 道生陰陽二氣이다. 道生一이란 太極의 靜과 動(體와 用)을 표현한 것으로 一元氣를 뜻한다.

二生三의 三은 天地人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氣形質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三生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도가 動하는 陰陽相生에 의해 만물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노자는 無爲自然이라 한다. 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데, 이는 人爲的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충기(沖氣)란 陰陽調和之氣로서 渾然之元氣를 뜻한다. 충기는 음기와 양기가 교합하여 하나로 융합된 기운을 의미한다. 즉 충기는 음기와 양기가 하나의 사물에서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의 사물이 도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충화의 기가 핵이 되어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이며, 충화의 기를 셋이라 한 것은 음양의 양기(兩氣)와 충화의 기를 더하여 셋이라 한 것 같다. 이는 만물과 도의 근본이 같으며, 만물은 도로 복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노자는 유가와는 달리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의 다른 점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다른 사물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천지 만물은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과 천지만물은 도를 하나의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老子 제1장에 “인간이 도라 규정한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요, 인간이 有名하다고 가치 부여를 한 것은 영원불변의 가치로서의 有名이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라 한 것은 인간의 유한과 제약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인간이 도라 한 것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형태를 지칭한 것으로서 영원한 진리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인간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이 명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자는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 無爲를 강조하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 본질을 표출하는 것으로 자연이라 한다. 따라서 자연과 무위

는 不可分的 關係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無爲自然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혜, 욕구, 행위, 세속적 가치 등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정적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人爲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 억지로 왜곡시켜 놓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 이용은 문화라 할 수 있는데, 문화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떨어질 수 없는 母胎와 같은 것인데, 자연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無爲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되는 행위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無爲는 道를 실행하는 것으로써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삶이며, 무리하게 인위적인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한다. 즉 무위란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같은 合理的 因果律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爲無爲란 단순한 無爲가 아니라 無爲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지혜로운 자가 사회에 害惡을 더 많이 끼친다고 믿은 노자는 지혜가 있으므로 큰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서 爲無爲라 한 것이다. 따라서 爲無爲가 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學不學, 味意味 등도 모두 노자의 역설적 표현이지만, 부정을 통한 적극적 긍정을 나타낸 것이다.

노자의 도는 인간의 욕구를 탈피한 무위를 통해서 자연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위이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자연인 것이다. 무위자연은 인간 초탈의 방법이며, 진리 접근의 방법인 것이다. 자연의 도는 자연적으로 생성 변화하는 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간섭하면 본래의 제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제도와 인간이 자연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연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자는 천지만물은 有에서 나오는데, 유는 無에서 나오며, 만물은 다시 無極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만물은 도의 기능에 의하여 생성되고 소멸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한다. 영구불변의 理法을 常이라 한다. 常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데, 이러한 변화 법칙은 영구 불변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자연의 理法을 돌아감(反, 復, 復歸)이라 한다. 모든 사물은 생성되고 성장하다가 극에 달하면 쇠퇴하여 소멸되는데, 이는 근원인 도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 작용은 자연의 법칙이라 한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생성과 변화의 理法을 강조하는데, 일시적인 대립과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연의 常道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노자는 사회의 윤리 도덕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 도덕이 자연의 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다운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허위와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는 관점에서 윤리성을 부정한 것이다.

노자는 인간의 윤리규범으로서의 도덕도 천지 자연의 법칙인 도와 일치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 사회의 죄악과 환란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욕구와 만족을 모르는 데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욕심보다 더 큰 죄가 없고,禍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²¹⁾

한편 장자는 도가 없는 곳이 없다는 遍在說을 주장한다. 노자가 도는 고상하고 초월적 존재라고 인식하는데 비해서, 장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와 관련이 있다는 內在的 普遍說을 주장하고 있다.²²⁾ 도가 無所不在하다는 本體論에서 천지 만물은 차별과 시비와 眞僞와 美醜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만물이 절대 평등하고 천지와 인간은 같이 생하며 만물과 인간은 一體라 한다. 인간이 일체의 理를 알지 못하고 만물을 차별시하여 시비와 득실을 따져 싸움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

21) 罪莫大于可欲 禍莫大于不知足 咎莫大于欲得, 老子, 제46장

22) 柳承國, 前揭書, p. 149

분에 집착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장자의 도는 物과 道가 분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萬物一體觀을 강조한다. 만물이 일체로 평등하다는 것을 장자는 천균(天鈞, 天均)이라 한다. 天鈞은 자연의 평등성은 물론,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평등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자는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도덕이 실행되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만물과 같이 자연 속에서 생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경쟁하고 투쟁하는 시비, 선악, 美醜, 尊卑 등은 상대적 차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의 편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초월하여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超脫하기 위해서는 名과 功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자기를 표준으로 이해의 득실을 판단하면은 만물 평등의 理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남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편견을 갖게 되며, 만물 평등의 근본을 망각하게 된다고 한다.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을 聖人, 至人, 神人, 天人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들은 인간 본성을 회복하여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인간의 본성은 德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상적인 사람만이 덕을 성실하게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덕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 賢人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에겐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한다. 덕은 무지, 무욕해도 가질 수 있고, 仁義가 없어도 덕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성(德)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으나 지식, 욕망, 분별력 등에 의해 상실한 덕을 도로 찾는 것이다. 장자는 덕은 虛·靜·明한 것으로 생의 근원으로서 生生者이며, 物物者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生生者, 物物者로서의 기능을 가진 본래적 자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을 반본복초(反本復初)라 한다.²³⁾ 반본복초

23) 李康洙, “老·莊의 理想的 人間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前掲書, p. 232

란 인간이 사물과 사건에 의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인 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덕을 회복한 이상적 인간은 본성에 따라 逍遙自在, 順性, 順物自然한다고 한다.²⁴⁾ 소요자재는 어떤 外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정신의 자유를 뜻한다. 장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無待의 逍遙”라 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도인 덕에 의한 삶이라 하였다. 진정한 자유로운 덕에 의한 삶은 無己, 無功, 無名の 수양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장자는 “至人は 無己하며, 神人は 無功하며, 聖人は 無名하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최고의 경지인 聖人に 이르면 명예나 功利는 물론, 자기의 존재마저도 의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無功과 無名은 자기 존재마저 의식하지 않는 無己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다.

順性은 자기의 本性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聖人は 지식, 誓約, 도덕, 기교 등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 살아 간다는 것이다. 본성에 따른 삶은 喜怒愛樂惡欲과 같은 정감을 잠재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는 自得과 性命의 자연스러운 眞情에 맡기는 것을 바람직한 삶으로 보고 있다. 自得이란 덕 또는 도를 체득하는 것이고, 性命의 자연스러운 眞情은 인간의 본성인 덕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성인 덕의 자연스러운 삶을 순성이라 한다. 순성의 삶은 虛·靜·明하며 꾸밈없이 소박한 本性에 따르는 것이다.

順物自然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따를뿐만 아니라, 物性の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私心을 버리고 자기의 주관을 고집하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심은 일반성이나 객관성이 없고 다양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 順物自然은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여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을

24) 上揭書, pp. 239-246

의미한다.

3. 佛敎의 道

불교는 강력한 전제정치를 행한 인도의 마가다(Magada)國의 변방인 카필라(Kapila)성의 태자인 고오타마 붓다(Gautama Buddha)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다. 고오타마의 고오는 소라는 뜻이고, 타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훌륭한 소라는 뜻으로, 소를 귀중히 여기는 관습에서 유래된 듯하다. 붓다는 '깨달은 자'란 뜻으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붓다는 석가모니, 석존(釋尊) 또는 싯다르타, 불타, 부처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해탈한 사람이란 뜻이 있다.

붓다는 초인간적인 투시력을 통하여 모든 생물은 태어나서 죽어 가며,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영원회귀(永遠回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붓다는 인간은 끊임없는 번뇌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였다. 붓다는 고통이나 공포, 의혹이나 애욕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강한 의지는 고행에 의해서 단련되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고행의 수도는 의지는 강해지지만, 올바른 지혜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고행을 중단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禪을 통해 큰 깨달음(大覺)을 얻었다.

붓다가 대각한 후 자기와 수행한 적이 있는 다섯명의 수행자들에게 처음 설법을 하였는데, 이 설법을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한다. 붓다가 성도하였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으나, 4체설(四諦說), 4법인(四法印), 8정도(八正道), 연기(緣起)와 같은 것이라 하는데, 이것들은 원시 불교의 교리가 되었다.

붓다는 먼저 苦와 樂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와, 苦·集·滅·道의 사성체(四聖諦)를 설했다고 한다. 체(諦)는 '신성한 진리'라는 뜻으로 사성체(四聖諦)는 4가지 진리라는 뜻이다. 인생의 고통은 生老病死의 4苦와,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지는 고통(愛別離苦),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怨憎

會苦),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所求不得苦), 5온²⁵⁾에 집착하는 고통 등 4가지를 더하여 8품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으나, 즐거움을 잃어 버리는 병이나 죽음의 고통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근본 원인은 생존에 대한 집착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것이다. 생로병사는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을 고통의 진리라는 의미에서 고타(苦諦)라 한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탐욕과 시기, 질투, 어리석음 등 그릇된 욕망을 갖는데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고통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불만을 조성해가는 욕망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은 감각적 안 정욕(情欲), 영원한 생존의 욕망, 생존의 단절을 바라는 욕망 등이 있다고 한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번뇌의 커다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 중에서 근본적인 것은 어리석음이라 하는데, 이를 무명(無明)이라고도 한다.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 등은 인간이 어리석은 데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즉 지혜가 모자라서 욕망이 생기고, 이 욕망에 의해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멸체(滅諦)인데, 이를 고통을 멸하는 진리라 한다. 멸체는 번뇌의 사슬을 끊었다는 것으로, 멸체가 된 상태를 니르바나(Nirvana), 즉 열반(涅槃)이라 한다. 도체(道諦)는 고통을 멸하는 길을 도의 진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8정도(八正道)이다. 불교에서는 인간고(人間苦)를 소멸하는 여덟가지의 도를 팔정도라 한다. 팔정도는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念, 正精進, 正定을 뜻한다. 正見이란 사물을 있는

25) 오온이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이다. 오온은 색온(色蘊), 수온(受蘊),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을 말한다. 蘊(skandha)은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색은 빛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으로, 특히 육체를 가리키며, 受는 감수(感受)로 苦受, 樂受, 不苦不樂受 등을 뜻한다. 想은 表象을 뜻하며, 行은 형성하는 힘을 말하며, 識은 인식이나 가치판단의 작용을 가리킨다.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여 무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平川 彰, 印度佛敎史 : 上卷(春秋社, 1967),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서울 : 민족사, 1994), p. 65

그대로 보는 것(如實知見)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올바른 사유(正思)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업(正業), 올바른 생활수단(正命), 올바른 신념(正念),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자기 몰입(正定)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즉 正見에 의해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며, 마음이 바르게 통일(正定)되어, 대각(大覺)의 경지인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팔정도는 중도(中道)라고도 한다. 욕망에 의한 탐욕적 생활은 천한 생활이고, 관능적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은 발전이 없다고 한다. 반대로 자신의 신체를 확대하는 고행도 괴롭기만 할 뿐 효용이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붓다는 양 극단을 버리고 중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쾌락을 선호하지만 쾌락만 즐기는 생활은 타락이며, 정신적 향상이 없다. 그리고 고행의 실천은 강한 의지와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노력은 고귀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단의 중도를 발견해 가_중 지혜가 팔정도의 正이다. 중도는 고타락중도(苦樂中道), 단상중도(斷常中道), 유무중도(有無中道)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타락중도는 극단적인 고타락과 樂을 피하는 것이다. 단상중도는 현상은 고정적이고 항상적(恒常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무중도는 있는 것(有)과 없는 것(無)도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며 독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팔정도에 의해서만 인간은 열반이라는 이상적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 팔정도를 요약해서 계(戒), 정(定), 혜(慧)라고도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학(三學)이라 한다. 삼학은 초기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수행의 방법이었다. 인간고(人間苦)를 내면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고타락의 원인인 탐(貪), 진(瞋), 치(癡)를 삼독(三毒)이라 하고, 삼독에 의해 생기는 고타락(苦)의 해결은 삼학의 수행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학 중 계(戒)는 윤리적 생활태도로서 산 생명을 죽이는 것, 도둑질, 부정한 성관계, 거짓말, 음주 등의 다섯가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말한다. 정(定)이란 혼란한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수

26) 上揭書, p. 63

련방법을 말한다. 정은 외부를 지향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아실현의 수행이다. 혜(慧)는 반야지(般若智)로서 사물과 현상세계, 인생의 실체를 바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삼학의 수련은 삼독을 과기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불교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삼학의 수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도는 진리이며 도덕적 행위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도는 올바른을 말하며,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연기((緣起)란 인연(因緣)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로 의존하여 생긴다는 뜻으로 상관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존재를 말한다. 연기는 모든 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멸한다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因果論)을 뜻한다. 緣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야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멀하면 저것도 멀한다”는 것이다. 타자에 의존한다는 것이 자기의 존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성립하고 유지되는데, 이는 근원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세계는 이러한 수많은 緣에 의해 법이 성립한다고 한다.²⁷⁾ 따라서 법이 생기게 하는 연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과 법과의 관계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과거로 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우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존재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緣起에 의한 연속의 세계라 할 수 있는데, 이로서 법계(法界)가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삼법인(三法印)과도 관련이 있다. 삼법인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행고(一切行苦)를 말한다. 諸行無常이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멸(生滅)하기 때문에, 모든 행하는 일들은 무상(無常)한 것이라 한다. 인간은 사물에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그것을 변하지 않는 참인 것으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 현상에 지나

27)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語義는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법은 인륜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관례, 의무, 사회질서 등과 나아가 善, 德, 眞理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上揭書, p. 66

치게 애착을 갖는 것은 미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諸法無我是 법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에는 영속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세계는 緣起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의 세계이며, 인간들도 법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으로서 인간은 자기 이외에 따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無我라는 것이다. 연기의 법을 알면 他로부터 단절된 고정적인 자아 개념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자기의 소유(我所)라는 관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타인들과 단절된 자아라는 생각을 갖고 이기적이며 욕망에 의한 타인에 대한 질투, 소유물에 대한 탐욕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에 의한 집착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諸法이 무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히 독립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一切行苦는 인간이 제행무상하고 제법무아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괴롭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無常한 것인데 영속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無我인데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데에서 인간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無常과 無我를 깨달으면 고통과 슬픔이 없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슬픔과 생로병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열반의 상태가 되려면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시불교는 교단이 확대되고 신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리의 해석이나 계율의 실천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다양하게 분파되었다. 이는 불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사색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자각(自覺)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도에 이르는 방법은 크게 소승적 수행(小乘的 修行)과 대승적 수행(大乘的 修行)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의 수행에서 추구하는 무아(無我)도 소승과 대승에서는 달리 이해하고 있다. 소승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을 제하고 나면 나(我)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아를 이해한다.

반면에 대승에서는 무아 보다는 공(空)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인법이무아(人法二無我)는 인법이공(人法二空)이라 한다. 반야경(般若經)에서는 일체가 공(空)이라 하여 일체법공(一切法空)이라 한다. 대승에서는 법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 얻는다는 증득(增得)의 두 의미가 있다. 가르침은 깨달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을 말로 나타낸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모두 의미한다.

소승적 수행은 삼업(三業)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삼업인 몸과 말과 뜻이 5戒를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業의 유입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윤회는 단절되고 열반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가수행(出家修行)이 권장되고 있다.

대승적 수행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가는 수련을 권장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을 강조한다. 대승에서는 마음을 여래장(如來藏), 불성(佛性), 본각(本覺) 등으로 부르고 있다. 마음을 정화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菩薩)이라 한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下化衆生) 것을 뜻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정각(正覺)한 것이 불설(佛說)로 성립하면, 그는 불타가 된다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정각한 자가 깨달은 바를 말로 표현한 경전이 많으며, 이 경전은 불설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승불교에서는 각기 정각한 내용과 불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불타가 다수일 수 있다는 다불사상(多佛思想)이다. 다불사상은 불타를 초인화·이상화하여 많은 불타와 보살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불타에 대한 동경과 신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불사상은 일반 사람이 불타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타와 같은 정각을 하고 설법을 하고 있는 데에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주술적 요소가 많았다. 반야경(般若經)에 “반야경을 수지하면 위난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반야경을 대명주(大明呪)·대신주(大神呪)라고도 한다. 법화경(法華經)에도 “관음보살을 신앙함으로써 모든 재해를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선불교(禪佛敎)에서는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열반을 도로서 설

명하고 있다. 증도가(證道歌)와 같은 선시(禪詩)에서는 열반을 얻은 부처의 경지를 도인(道人)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인은 배움을 계속하고 자연 상태를 갖는 것(絶學無爲)으로 노장사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선불교에서는 절대적 진리와 해탈의 원천인 불성(佛性)은 인간에 본래적으로 있다고 한다. 불성을 실현하려면 먼저 깨달은 선승(禪僧)의 가르침에 따라 좌선(坐禪)하여 내성(內省)하라고 한다. 선불교는 문자화된 불경을 사용하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불성(佛性)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기록된 문자가 없는 것을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고, 이심전심으로 직접 마음을 전하는 것을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하며, 이를 통해 본래의 불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을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한다.

다른 교파에서는 경전을 탐구하여 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지만, 선불교에서는 정통 교리와는 달리 어록(語錄)을 중시한다. 선불교에서는 어록을 듣고, 수도를 통해 일순간에 크게 깨닫는 돈오사상(頓悟思想)을 강조한다. 돈오는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는 점오(漸悟)가 아니라, 순간적·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돈오는 일체법(一切法)을 완전히 깨달은 것으로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Ⅲ. 道通眞境의 意義

대순사상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에서 사용하는 道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만 하겠다. 道通은 '도를 통한다', 또는 '도에 통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도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경도 도통을 해야만이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도의 의미와, 도통진경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大巡思想의 道の 의미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는 유가, 도가, 불교 등에서 전개한 도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발전시켜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본래 유불선의 사상과 철학을 통합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상체계를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개념도 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는 동양에서 전개해 온 도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나아가 종교적인 사상체계로 발전시켰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깨달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도는 지적 탐구(知的 探究)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깨달아 생활에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도는 깨닫는 것(道之覺)이고 실행하는데 본질적 의의가 있지만, 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도를 깨닫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하여,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道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가(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²⁸⁾고 한다. 도란 중단하거나 휴식이 없으며 형태와 자취가 없고, 소리와 냄새도 없다고 한다. 도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道는 공명정대하여 어떠한 조작이나 거짓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아서 곡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한다.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도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²⁹⁾고 한다.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양에는 자연의 오묘한 이치가 있으며, 올바른 경위와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는 음양에 의한 우주의 구성, 만물의 생성과 소멸하는 이치, 인간 생활의 경위와 법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양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데, 여기에는 오묘한 이치와 경위, 법 등이 있는데 이를 도라 한다. 인간도 우주의 한 구성

28)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p. 91-92

29) 上揭書, p. 18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도 道의 바른 이치를 깨닫고, 道에 의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바른 도리가 바로 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주를 크게 보면 하늘과 땅, 인간으로 나누어 三界라 하는데, 삼계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이치와 경위, 법 등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작용에는 각기 이치와 경위, 법칙이 있는데, 이를 天地之道라 하기도 하고, 구분하여 천도(天道)와 지도(地道)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도 천도와 지도를 따라야 하며, 도에 따른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인도(人道)라 한다. 천도(天道)는 우주의 순환 원리와 법칙을 뜻하고, 지도(地道)는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말하며, 인도(人道)는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지켜야 할 도리나 법도 등을 뜻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神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신도(神道)가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도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순사상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은 도에서 시작되고, 성장과 소멸하는 모든 자연현상을 도라 한다. 이러한 도의 개념은 천도(天道)와 지도(地道)라 할 수 있다. 이를 天地의 道, 또는 천지자연의 이치라 하는데, 天, 道, 理라고도 한다. 天地의 道는 하늘과 땅의 구성과 작용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天地의 道는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必然)의 理法이라 할 수 있다. 천지의 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이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도의 개념을 대순(大巡)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대순이 圓이고 無極이고 太極”이라 하여, 대순도 음양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대순이 원이라 한 것은 우주와 우주의 순환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우주와 우주를 구성하는 태양과 지구, 흑성 등은 모두 원형이다. 그리고 지구와 흑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순환운동을 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태양, 지구, 흑성 등의 영속적인 순환운동에 의해서 밤과 낮이 생기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대순이라 한다. 이러한 우주의 대순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어 성장하고 소멸하는

데, 이를 도라 한다.

대순은 원이고 무극이고 태극이라 한 것은 음양에 의한 생명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무극상태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는 태극에 의한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뜻한다. 태극상태에서 음양이 대립하는 상대성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고 성장·변화하는 순환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의 생성과 변화는 분열(태극)과 통일(무극)의 순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대순이라 할 수 있다.³⁰⁾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상태의 음양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음양합덕이라 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향과 특성이 대립적인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양이 결합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운동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음과 양이 相反應승인 대립과 통합을 반복하는 합덕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고 성장과 소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생성과 변화, 만물의 존재는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의 분열과 통합의 영속적 순환에 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이며, 사물이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순환을 영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만물은 생멸변화를 되풀이 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유구하고 무한한 대순을 한다는 것이다.

음양합덕을 도로 이해하는 것은 주역계사(周易繫辭)에서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一陰一陽之謂道)” 한 것과, 노자가 도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음양합덕은 궁극적으로 도의 작용이고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역사 발전을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음양합덕이 각기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선천세계에서는 음양이 상극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하게 되며, 후천세계에서는 음양이 상생원리에 의해 결실되고 안정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천지 자연은 음양에 의해 상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선천세계에서는 음과 양이 상극원리에 의해 상

30)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77), pp. 258-259

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음양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원한이 쌓이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류가 진멸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주의 구성요소와 인간사회가 상극원리에서 상생원리로 전환되어야만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천지 만물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음양합덕에 의한 영속적 순환을 생장염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장염장은 우주의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저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영속적 순환인 대순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장염장은 춘하추동의 계절의 변화와 대비하기도 한다. 봄에는 하늘이 따듯한 기운을 땅에 내려 만물을 소생시키며, 여름에는 만물의 성장을 왕성하게 하고, 가을에는 결실이 이루어지며, 겨울에는 창조와 성장운동을 마치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 가는데, 이러한 자연 현상을 도라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장염장을 인류 역사에 적용하여, 선천세계에서는 生長을 하고, 후천세계에서는 斂藏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
이화(無爲而化)니라.³¹⁾

생장염장은 유교에서 말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과도 같은 의미이다. 유교에서는 元(시작), 亨(성장), 利(완숙), 貞(결실의 마침)의 과정에 의해 천지는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자연은 시작과 끝이 일직선으로 항구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은 끝이 있고, 끝에 이르면 새롭게 시작되어 처음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순환을 한다고 한다. 사물은 극(極)에 달하면 되돌아 오는데(物極必反),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한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순환을 사계절과 비유하여 元은 우주의 힘이 형성되는 봄이고, 亨은 우주의 힘이 번성하는 여름이며, 利는 우주의 힘이 쇠퇴하면서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가을이고, 貞은 만물이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안정되는 겨울이라 한다.

한편 신유가(新儒家)에서는 元亨利貞과 仁義禮智를 각각 대조하여 元은

31) 전경, 교법 제3장 27절

仁, 亨은 禮, 利는 義, 貞은 智라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를 우주에 내재하는 이치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우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주의 순환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가에서도 만물은 생성되고 성장하여 변화를 하지만 언젠가는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만물이 생성되고 번성하여 근본으로 돌아 가는 것은 만물의 근원인 도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이를 정(靜)이라 한다. 또는 만물이 계속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법(理法)으로 돌아 가는 것을 反, 復, 復歸라고도 하는데, 이를 상(常)이라 한다. 靜과 常은 만물이 근본인 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도가에서는 靜이나 常을 아는 것을 명(明), 즉 밝은 지혜라 한다. 도가에서 만물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靜과 常은 성장염장의 원리와 같은 의미이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도에는 덕이 있고, 덕에 의해서 化(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化는 만물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변화의 이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르고 돌보는 育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한다. 道는 천지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道에서 德이 생기고 덕에서 변화가 생기며, 育에 의해 창생이 되며, 억조, 원대, 당요 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도에서 창생에 이르는 德-化-育 과정을 3德이라 한다. 德-化-育 3덕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도에서 나오는 덕은 본질적인 것으로 하늘의 덕인 天德이고, 변화는 地德이며, 기르고 돌보는 것은 人德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도에 의한 天地人의 각각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道가 있고 도에 德이 있으며 덕에 化가 있고 화에 育이 있으며 육에 蒼生이 있으며, 창생에 億兆가 있고 억조에 원대(願戴)가 있고, 원대에 당요(唐堯)가 있다. 32)

도에 덕이 있다는 것은 道家思想에서도 볼 수 있다. 노자는 도는 모든 것 중의 최초의 것으로, 도에서 나오는 덕이 만물을 생성하고 기른다고 한다.

32) 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 蒼生有億兆 億兆有願戴 願戴有唐堯, 전경, 교운 제1장 66절, p. 186

도가 만물을 생성하고, 그 위대한 덕으로 만물을 기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은 모두 도를 존중하고, 위대한 덕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도는 만물을 생성하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덕은 만물을 육성하지만, 자기 공로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가 만물을 낳고, 도의 공덕이 만물을 기르고, 만상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형태있는 것의 질서가 이루어지니, 만물은 모두 도를 숭상하고 그 공덕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도와 그 공덕의 존귀함은 누가 명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적인 것이다.

도가 만물을 낳고, 그 도의 공적이 만물을 기르고, 이를 신장하고, 양육하고 안정시키고, 충실하게 하고, 기르고 보호한다. 도는 만물을 낳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공덕은 만물을 육성하면서도 뽐내지 않고, 성장시키면서도 지배자로 자처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³³⁾

셋째,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도라 하는데, 이는 인도(人道)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천지만물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동식물들은 의식은 있지만 수준이 낮아 실천 의지가 없으며, 단순히 본능적 삶만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천존과 지존 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³⁴⁾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있다. 인간은 지각능력과 창조력,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존중받아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지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 현상과 인간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 동물 등을 숭배하였다. 특히 하늘과 땅에는 각기 신묘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33) 道生之하고 德畜之하고 物形之하니 是以로 萬物은 莫不尊道而貴德이니라. 道之尊과 德之貴는 夫莫之命而常自然이니라. 故로 道生之하고 德畜之하여 長之育之하고 亭之毒之하고 養之覆之하니 生而不有하고 爲而不恃하고 長而不宰라 是謂玄德이니라. 道德經, 제51장

34) 전경, 교법 제3장 56절, p. 244

믿어 숭배해 왔으며, 인간은 종속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인습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인간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에서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³⁵⁾하여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 한다. 천지는 본래적으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천지의 덕을 활용하여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완성한다고 한다.

우주에서 인간이 이러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한다. 인간이 도를 닦아 천지와 같은 마음(天地之心)을 가져야 존중받고, 우주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天地之心을 갖는 것은 本性을 회복하고 자연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修道를 하여야 天地之心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天地之心은 道心이라 할 수 있는데, 도심은 순수한 본래의 마음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道心을 기르는 것은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은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동양에서 수양은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공자는 心에서 仁을 설명하였고, 맹자는 心으로 性을 분석했다. 중국의 사상가들은 심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맹자는 心을 성정심(性情心) 또는 덕성심(德性心)으로 보았고, 墨자는 心을 지식심(知識心) 또는 이지심(理智心)으로 이해하였으며, 장자는 心을 상심(常心) 혹은 영대심(靈臺心)이라 하였고, 荀子は 통섭심(統攝心) 또는 주재심(主宰心)이라하여 심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³⁶⁾

중국 사상가들의 心은 수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心을 바르게 유지하고 통어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다. 수양의 대상으로 心은 맹자와 장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심수양(心修養)에 있어서 맹자는 도

35) 전경, 교법 제3장 25절, P. 257

36)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서울 : 서울 學古房, 1996), p. 291.

의심(道義心)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장자는 무기무심(無己無心)을 강조하고 있다. 맹자는 일상의 생활에서 예의를 갖추어 격식있는 자세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장자는 마음을 비운 허심(虛心)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 석심(釋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은 혼란한 상황에 의해서 바른 마음을 상실하기 쉽다고 보았다. 小人이나 속인(俗人)들은 유혹에 흔들리는 속성으로 자기의 본성을 상실하는데, 본성을 상실한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한다. 미혹(迷惑)에 빠진 것을 알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소인이나 속인들은 미혹에 빠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성을 상실하고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자도 맹자와 같이 마음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장자는 “사람의 슬픔 중에서 마음이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큰 슬픔은 없고 육체의 죽음은 그 다음이다”³⁷⁾라 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죽어 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 한 것은, 인간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 생존의 최대 가치로 보았던 것이다. 인간의 생존은 육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올바른 마음이 유지되어야 인간으로서의 생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와 장자는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수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맹자는 인간이 마음을 상실하면 동물과 같아지고, 장자는 인간이 모든 일에 접할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심수양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이 본성을 상실하거나 자연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심수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심수양을 하여 仁義禮智를 통해 흠어진 마음을 부동(不動)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장자는 마음을 자유롭게하여 자연과 같이 생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³⁸⁾

대순사상에서는 심수양, 즉 수도를 하는 것은 맹자와 장자의 수양법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맹자와 장자가 주장하는 심수양은 방법은 대조적이지만,

37) 夫哀莫大於心死，而人死亦次之，莊子，田子方。

38) 上揭書，pp. 296-297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여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로 도심을 키우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이다. 대순사상에서는 “眞心堅守福先來”³⁹⁾라 하여 진실한 마음을 견지하면 福이 온다고 하였다. 수도는 진심, 즉 참다운 마음을 갖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이 참다운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은, 맹자가 강조하는 仁義禮智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장자가 말하는 마음의 자유와 자연과 같은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⁴⁰⁾하여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한다. 인간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는, 人道를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修道를 하여 도심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인간이 진실한 마음을 갖는 수도는 誠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도는 誠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誠이란 부단한 노력,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 집중,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誠을 강조하는 것은 儒家에서의 誠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中庸 제20장에서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 한 것은 誠은 天道와 人道의 양면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誠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라는 것이다. 주자는 誠은 眞實無妄이며 天理의 본연이라 하였다. 眞實無妄한 자체는 천도이고, 眞實無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도라는 것이다. 인간은 아직 성실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眞實無妄해 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儒家에서는 眞實無妄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聖人이라 한다. 聖人の 덕은 天理이어서 眞實無妄한 天道를 실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聖人の 경지에 이르지 못한 보통 사람은 慾求와 사적 감정이 있어, 그 덕이 진실하지 못하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誠하지 못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聖人과 같

39) 전경, 교법 제2장 3절, p. 234

40) 전경, 교법 제2장, p. 6

이 天道를 이루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무망해 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선령신(先靈神)들이 60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때로는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자손을 얻지 못하는 선령신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정성을 기울인 결과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선령신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⁴¹⁾

선령신들의 공력에 의해 태어난 인간이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한마음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으니,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⁴²⁾

사람이 수도를 하여 人道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해원상생을 위해 필요하다. 해원상생은 인간사회와 신명계에 쌓인 원한을 풀어 주고 남이 잘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人道를 실천하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미 생긴 원한이라 하더라도 풀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해원상생이 이루어지고, 해원상생이 이루어져야 도통진경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41) 전경, 교법 제2장 36절, p. 241

42) 전경, 교법 제2장 5절, pp. 234-235

넷째, 대순사상에서는 신도(神道)라는 특성이 있다. 神道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있다는 특수한 도의 개념이다. 神道란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의 행동에는 신명이 같이 한다는 개념이다. 인간이 하는 일은 신명의 도움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일을 할 때만이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신인조화(神人調化)라 하는데, 신인조화는 인간을 陽으로 보고 신을 陰으로 전제하여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만 한다는 음양합덕을 적용한 사상이다.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⁴³⁾하였는데, 이는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명세계와 인간사회는 음과 양으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만이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⁴⁴⁾

신인조화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성립한 사상이다.⁴⁵⁾ 신인조화는 신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의 의지를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 형성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인조화는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합일시키려는데 의의가 있다. 천리는 하늘의 뜻으로 곧 신의 뜻이고, 인사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신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늘의 뜻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면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는 상생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만 있고 사람이 없거나, 신은 없고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므로, 신과 인간이 상통하고 화합하여야만이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신의 일과 인간의

43) 전경, 재생 43절, p. 309

44)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pp. 546-547.

45)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p. 5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상합할 때 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곳이 없게 되니,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야 백가지 공사를 이룰 수 있으며, 신명이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신명을 기다리며, 음양이 상합하고 신과 인간이 상통한 후에야 천도가 이루어지고 도가 완성되며,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도 이루어진다. 46)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도를 수련하지 않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 47)

인간이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명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이 도를 닦아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한 생활을 하면, 신명이 도와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 고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오”⁴⁸⁾하였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원수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신명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神道는 인간세계의 일은 대순사상의 創道主人 九天上帝(姜甌山)의

46)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
 竣人人竣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之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
 事成, 전경, 교운 제2장 42절, p. 207

47)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 237

48) 전경, 교법 제1장 55절, p. 231

天地公事に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다. 神道는 九天上帝께서 도를 잃어 버린 無道로 인하여 진멸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하였는데, 천지공사에 따라 인류 역사가 변화되어 간다는 믿음이다. 대순사상에서 인류 역사는 先天世界에서 後天世界로 발전해 가는데, 이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와 계시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현세계를 말하며, 후천세계는 도통진경이 이루어진 이상세계이다. 후천세계는 인간이 신과 조화를 이루고 신의 뜻을 존중하며, 해원상생이 이루어진 이상 세계이다.

대순사상의 도의 개념인 天道, 地道, 人道, 神道 등은 대순사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대순사상인 陰陽合德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天地之道인 天道와 地道이고, 解冤相生은 인간이 인류 도덕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人道이며, 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만이 天理와 人事가 합일될 수 있다는 神道와 관련된다.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道通眞境은 天道, 地道, 人道, 神道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 道通의 意義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주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도통은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異蹟)을 행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도통의 세속적 의미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이란 일반적인 도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도통은 도를 통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에 통한다는 것은 관련있는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도통의 통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인 통하지 않는다는 不通과 비교해 볼 수 있다. 不通은 관련있는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활동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다. 不通은 관련있는 요소들이 서로 이해하지 않는 상극적 관계로 경쟁과 투쟁을 하여 갈등과 대립적 관계로 나타난다.

도통은 모든 도가 상통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도통은 대순사상의 도인 天道, 地道, 人道の 주체인 天地人이 막힘이 없이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과 서로 통하여 화합을 이루면서, 각각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통에 대해서 대순사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 아즉도(道卽我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⁴⁹⁾라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통찰하고 깊이 깨닫기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하고 성실한 수도를 통해서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한다. 도통은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바로 道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은 도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것인데, 인간이 실행해야할 궁극적 가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는 인간과 무관한 외적 대상으로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가에서도 道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道不遠), 사람이 진리의 주체이며 본성에 있는 도를 넓혀 나가야 한다(人能弘道)고 한다.⁵⁰⁾ 도가 인간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도라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도가 인간이라 한 것은 인간이 내재해 있는 본성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은 인간이 도를 깨닫고 도에 의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같은 본성을 회복하여 덕을 실행하는 완성된 인격체가 된 것이다. 도는 天에서 유래하며 본래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데, 인간이 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도와 유리된 행동

49)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p. 9

50)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關한 研究,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前揭書, p. 143

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는 자각하고 확충시켜 나가야 하며, 행동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道之覺),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며, 이를 널리 펴야 한다(布德)고 한다. 즉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깨달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확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며, 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이러한 수도를 통해서 도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환하게 통할 수 있게 된다. 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통은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의미의 道를 완전히 깨달아 초월적인 능력을 갖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의 도통은 인간이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하고, 중찰인의(中察人義)⁵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上通天文과 下達地理는 天地 自然이 음양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고, 中察人義는 天地의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 그 존재 의의와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도통은 인간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과도 통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천지인 삼계의 도인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는 물론, 신과도 합일(神道)을 이루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도통은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의 의미와 사상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이 우주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나 이치를 통달한 것을 의미한다. 도통은 天地之道인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법칙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인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 등에 완전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

51) 전경, 교법 제3장 31절, p. 256

能)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의 생성원리인 음양합덕을 완전히 깨달아야 하고, 신과 인간이 상합할 수 있는 신인조화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신명계와 인간사회의 쌓인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는 해원상생을 실천해야 하고, 도통진경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한 수도를 해야만 가능하다.

둘째, 도통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도통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人道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人道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도통한 자는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聖人の 경지에 이른 것이며,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한 상태를 말한다.

儒家에서는 君子를 강조하는데, 최고의 인간상은 聖人이라 한다. 유가에서 성인으로 추앙되는 공자는 “70이 되니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法度에 어긋나지 않더라”⁵²⁾라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리고 中庸에서는 공자를 “堯舜의 道를 이어받아 펴고, 文武의 法을 드러 내었으며,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지리를 익혔으니, 마치 하늘과 땅의 동물을 남김없이 덮어 주고 실어 주는 것과 같으며 四時가 번갈아 운행하고, 해와 달이 번갈아 밝히는 것과 같다”⁵³⁾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성인을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의 理法과 합치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고 있다.

노자는 이상적 인간상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성인이 대표적이다.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무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한다고 한다. 성인은 무위하여 실패하지 않으며 不欲하여 귀한 재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게 살피며, 하지 않아도 이룬다고 하여 신비스런 현통(玄通)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聖人을 노자는 天地와 같이 久遠하고 진실하여 영원히 산다고 한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두어도 앞에 나서게 되며, 몸을 버려도 살아남게 된다고 한

52)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論語, 爲政篇

53) 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上 如天地無不持載 無不履憊 如四時錯行 如日月之代明

다.⁵⁴⁾

人道를 완성하여 도통한 사람은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한다는 것이다. 中庸에서 誠은 天道이고, 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道라 하였는데, 도통한 사람은 天道인 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를 실천하여 도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한다고 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⁵⁵⁾ 하여 마음을 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되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意不誠)”⁵⁶⁾하여 마음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도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사는 생활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를 실천하는 것이다. 성실해 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그릇되게 갖지 않는 진실한 자아를 실현하여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모든 죄악은 나 자신을 속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의 본질인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하게 하는 척을 짓지 말라고 한다. “속담에 ‘무척 잘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⁵⁷⁾ 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고

54)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故能長生。是以 聖人 後其身 而身先 外其身 而身存，道德經，7章

55) 전경, 교법 제1장 21절, p. 225

56) 대순지침, p. 76

57) 전경, 교법 제2장 44절, p. 242

한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소극적인 인도(人道)라 한다면, 남을 도와 주는 것은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인도로 할 수 있다. 이는 儒家에서 말하는 仁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척이나 원한을 짓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것은 큰 仁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⁵⁸⁾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⁵⁹⁾ 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원한을 갖고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포용하라고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보복을 하게 되면, 원한이 확대되고 해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억울한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상생을 실천하라고 한다.

남이 잘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어려운 해원상생을 실천해야만 한다. 도통에 이르면 언제 어디서나 眞實無忘하기 때문에 해원상생을 실천할 수 있다.

셋째, 도통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면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말하는 도통은 도를 수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하여 완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도통은 우주의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인격을 갖춘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지상신선, 또는 신선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의 인간은 육신의 한계와 한 없는 욕구로 인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과 같은 존재인 신선이 되는 것이 도통이다. 신선이 되는 것은 영통(靈通)으로서 인간이 신명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58) 전경, 교법 제1장 56절, p. 231

59) 전경, 교법 제1장 34절, p. 227

대순사상의 도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상적 인간상인 신선관념(神仙觀念)과 같은 것이다. 신선이란 인간이 초월적인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⁶⁰⁾ 신선은 선인(仙人)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서 자연주의적 초월적 인간관에서 유추된 존재이다. 즉 신선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서도 자연을 초월한 생활을 하는 인간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신선관념(神仙觀念)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性은 生의 의미를 갖고 있어 생리적 본능을 뜻한다. 인간이 생존한 상태에서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⁶¹⁾

3. 眞境의 의의

진경은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다운 경지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 우주 만물은 불완전한 환경으로 갖가지 災禍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공정한 생존법칙으로 많은 원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과 불공정한 법칙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지상 낙원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진경이다.

인간과 동식물은 하늘과 땅, 인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살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은 음과 양으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한다. 하늘은 태양열, 비 등을 내려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해 준다. 땅은 하늘에서 내려 주는 것을 받아서 인간과 동식물이 성장

60)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p. 146

61) 대순지침, 前揭書, p. 75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만물을 이끌어 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천지인 삼계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도에 의해서 하늘은 덕을 갖고 있고, 땅은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의 덕과 땅의 변화 능력을 활용하여 기르고 돌보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德化育을 통해서 우주 만물은 생존하고 자연은 변화하게 된다.

天地人 三界는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야 인간과 만물이 생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세계의 三界는 불완전하여 갖가지 災禍가 나타나고, 만물은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상에 생존하는 동식물들은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리에 의해 도태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였다. 식물은 뿌리를 내려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부조화한 자연 상태로 인하여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물들도 자연 환경의 악화와 약육강식으로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간도 과학 기술의 고도화로 자신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켰지만, 불완전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류가 발전시킨 현대 문명은 불완전하여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음양합덕이 상극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을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⁶²⁾라고 한다. 상극이란 우주를 구성하는 음과 양이 경쟁을 하여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극은 음과 양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극한적인 대립을 하기 때문에, 한 쪽은 패배하거나 피해를 입어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된다.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된 쪽은 원한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쌓인 원한이 天地와 인간사회에 만연되어 도를

62) 전경, 공사 제1절 3절, p. 98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천지인 삼계가 도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아 많은 재화가 일어나 참혹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常道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음양이 다른 존재를 부정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상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상극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생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양합덕은 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陰德과, 양이 가지고 있는 陽德이 상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균등한 상태인 正陰正陽으로 合德을 이루어야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선천세계에서는 抑陰尊陽으로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원한이 쌓이고 재화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인간생활은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현재의 세상을 선천세계라 하고, 완전히 변혁된 세상을 후천세계라 한다. 후천세계는 선경으로 진경이 이루어진 세계이다. 선천세계는 수화(水火)상극으로 자연 재해가 심하고, 지운(地運)이 통일되지 않아 토양이 척박하며, 인간과 신명들은 원한에 쌓여 있어 인류가 진멸하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세상이다. 따라서 참혹해진 세상과 도를 잃어버린 선천세계를 완전히 변혁시켜 새로운 세상인 후천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혁을 대순사상에서는 개벽(開闢)이라 한다. 개벽은 인간 정신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인 우주 자체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벽이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가 진경이다. 개벽은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변하는 전환기이다.

선천세계의 잘못된 우주를 바르게 하여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는 천지와 신명계, 인간계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거대한 체제이다. 따라서 인간과 생활 방법의 개조만으로는 미흡하고, 생활환경인 우주까지 개혁해야만 진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⁶³⁾ 인간의 개조는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하며, 인류 도덕을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63) 大巡宗教文化研究所, 甌山の生涯와思想(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1979), pp.

진경은 선천세계에서 상극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주 만물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상태를 실현한 것이다. 진경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들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의 만물이 생존하는데 부적합한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여 조화로운 환경으로 변한 것이 것이 진경이다.

이러한 진경은 음양합덕이 상생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이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 주어야 진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음양합덕이 상생원리를 따르는 것은, 도에 의해서 천지인이 서로 통하는 도지통명(道之通明)하는 것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상생원리에 따를 때, 모든 개체들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각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도통진경은 인류의 물질적 영역과 정신 영역이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이상 상태인 도통진경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조화를 이룬 고도의 성숙된 경지를 의미한다.⁶⁴⁾ 따라서 도통진경은 인류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진경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도통진경은 후천세계를 의미하는데, 도통진경은 인류를 포함한 만물이 자연 상태대로 최고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만물을 괴롭히는 災禍가 없어지고, 生老病死의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존재하는 만물이 도에 의해서 서로 통하게 되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

64) 鄭大珍, 前揭論文, p. 11

로 화하리라.⁶⁵⁾

이러한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의 내세관(來世觀)으로 지상선경이라 한다. 대순사상의 내세관은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주요한 특성이 있다. 다른 종교의 내세는 사후세계(死後世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대순사상에서는 인류가 생존하는 현실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기독교에서는 천당, 불교에서는 극락 등으로 사후에 인간이 생존시의 신앙심과 윤리성의 실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로 들어 간다고 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를 수련하는 바에 따라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不老不死하며, 지상선경의 이상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結論：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이제까지 道の 개념과 대순사상의 도통진경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기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각기 정당성을 갖고 있다. 道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도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그리하여 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떠한 설명도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동양에서 발전되어온 유가, 도가, 불교 등에서 도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儒家에서는 도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 등이라 하여 仁義道德을 강조한다. 道家에서는 우주 만물은 생멸변화를 반복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라 한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탈피한 無爲를 통해서 자연과 같이 생활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욕구에 의한 의식적인 作爲는 참된 도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無爲自然의 순수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고(人間苦)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색과 깨달음(自覺)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번뇌의 원인을 깨닫고, 이를 없애는 방법이

65) 전경, 예시 81절, pp. 336-337

진리이고 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여 통합하였고, 도통진경이라는 용어를 통해 종교적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는 天地之道로서 天道와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로 요약할 수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天地人에는 각기 道가 있으며, 인간은 신과 교류해야만 하며 신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神道가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은 양과 음으로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天道와 地道라 한다. 하늘과 땅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데, 天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과 쇠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생성된 만물을 기르고 돌보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人道라 한다.

神道는 대순사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도의 개념이다. 神道는 인간을 양으로 보고 신을 음으로 전제하여 인간과 신이 상합해야만,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인간세계의 일은 대순사상의 신앙의 대상인 九天上帝(姜甌山)의 天地公事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는 先天世界라 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後天世界라 하는데 이러한 역사 변화는 신과 인간의 완전한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신도는 인간에게는 신명이 함께하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마음을 갖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복을 주지만, 그릇된 행동을 하면 징벌을 준다는 사상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한다. 수도는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天地之道와 人道, 神道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순사상을 깊이 성찰하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도리인 人道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덕을 쌓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에 실천해야만 의의가 있다고 한다. “모든 일을 알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리라...”⁶⁶⁾ 하여,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

66) 전경, 교법 제3장 28절, p. 255

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⁶⁷⁾하여, 옳은 일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한다. 수도는 깨달은 도를 실행하는데 참다운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여야 되느니라”⁶⁸⁾하여, 도덕적 행위의 실천은 영웅과 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성실한 수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道通眞境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하여 종교적 사상체계로 발전시켰다. 도통진경은 도를 통한 참다운 지경으로 이해 하기도 하고, 도통과 진경의 합성어의 의미도 있다. 도통은 인간이 대순사상의 도에 완전히 통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도통은 천지자연인 우주의 생성과 만물의 변화 원리를 통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초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충실하게 실행하며, 신과 인간이 상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진경은 인류를 포함한 만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다운 경지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인간과 만물을 괴롭히는 災禍가 없어지고, 生老病死의 고통이 없어진 이상적인 환경이 진경이다. 진경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존재하는 만물이 道에 의해서 서로 통하게 되는 이상사회가 실현된 것이다.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이상향으로서 도의 완성을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모든 종교현상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진경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성한 힘이나 초월적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⁶⁹⁾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뇌에 접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성한 초월적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죽음도 종교에서는 새롭게 해석되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에서 죽음은 생물학적 생명의 소멸과는 달리 종교적 삶으로 이행된다. 육체적 죽음에서 종교적으로 새로운 태어남

67) 전경, 교법 제1장 23절, p. 225

68) 전경, 교법 제1장 23절, p. 225

69)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서울 : 지학사, 1985)

을 자각하는 것이 종교적 깨달음인 것이다.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는 유한하지만, 종교적 체험을 통한 새로운 태어남은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였다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과 같다.

대순사상의 도통진경은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체계이다. 도통진경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를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통진경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비성과 윤리성을 갖고 있는 사상과 신념체계이다. 도통진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인류 역사가 지향하는 초월적인 이상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⁷⁰⁾ 도통진경은 종교 생활을 통하여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도통은 인간이 신비한 神과 같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진경은 인간과 환경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물질적 영역과 정신 영역이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도에 완전히 통한 도통한 인간은 永生不死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인 신념체계이다.

한편 도통진경은 윤리성을 갖고 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 완성이기 때문에 종교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다. 도통진경은 인간이 기본적인 도리를 충실히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人道를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상생적 관계가 실현될 때, 天理와 人事가 합일되는 이상사회인 선경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통진경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신앙과 유불선의 사상을 통합하여 민족종교로서의 가치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多宗教로 인

70)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燾 외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 11

한 다원적인 종교적 가치 혼돈에 빠져 있다.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은 祈福行爲에 의해 혼란 상태에 있다. 인간관계의 위계질서(位階秩序)는 유교의 윤리관을 따르고, 삶의 당혹감을 달래고 해석하는 데는 불교의 인과업보관(因果業報觀)에서, 삶의 역동적 추구를 구하는 행동 철학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의 운명을 헤아리는 운명관은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면적 가치 복합 상황은 행위자의 주체적인 자기 각성 내지 원칙의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가치 혼돈으로 나타나게 된다.⁷¹⁾ 대순사상은 이러한 종교적 가치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종교로서 적합하다고 믿는다. 도통진경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대순사상은 민족종교로서 한민족의 주체성과 절대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성의 어떤 종교의 敎理에 비해서도 체계적이다. 대순사상은 다종교에 의한 혼돈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종교관을 갖게 하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종교로서 대순사상은 서구의 사상과 종교, 문화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적합한 사상이라 생각한다. 서구의 사상과 종교, 문화 등에 편향된 가치관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전 세계는 인구 과잉과 식량 부족,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부족, 심각한 환경파괴와 각종 오염, 도시문제, 각종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지구의 종말을 우려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⁷²⁾ 대순사상의 도통진경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에게 적절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통진경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로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고,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순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다종교로 인한 혼란과 윤리관의 파괴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이념과 행동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대순사상은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적합하고 전통적인 사상

71) 尹以欽, 韓國 宗教 研究(서울 : 集文堂, 1986) p. 250

72) Conrad H. Waddington, The Man-Made Future, 李元植, 未來의 人類社會(서울 : 1982), pp. 9 -10

을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정통성과 민족의식의 고양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종교적 이념과 실천적 윤리관은 우리 사회의 혼란된 가치체계의 정립과 사회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순사상에 함축된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하여,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도통진경에 대해서 고찰하였지만, 서설적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통진경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동양사상과 우리 민족의 얼을 종합하여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어 사상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도통진경을 포함한 대순사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老子

論語

道德經

孟子

中庸

二程 全書

典經, (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89)

대순지침,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大巡眞理會要覽, (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大巡宗教文化研究所, 甌山の生涯와思想(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79)

金勝東, 道敎思想辭典(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金鍾瑞, “東·西 宗教觀의 比較”,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宗教思想의 諸問題(V)(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裴宗鎬, “東洋 本體論 序說”,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關한 研究”,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93)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서울 : 서울 學古房, 1996)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柳仁熙, “程·朱의 人性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尹以欽, 韓國 宗教 研究(서울 : 集文堂, 1986)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서울 : 지학사, 1985)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燾 외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서울 : 三省出版社, 1981)

柳七魯, 中道와 原始儒家의 本體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李康洙, “老·莊의 理想的 人間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李相珣, “孔孟之道의 現代社會思想的 意味”,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 주식회사, 1993)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平川 彰, 印度佛教史 : 上卷(春秋社, 1967),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서울 : 민족사, 1994), p.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Conrad H. Waddington, The Man-Made Future, 李元植, 未來의 人類社會(서울 : 1982)